

올 출판계 '한강 효과' ... 소설 돌풍



올해 문화 출판계 최고 뉴스는 단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었다. '한강 효과', '한강 열풍'으로 불릴 만큼 한강의 책들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년이 온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80년 당시 참혹하게 짓밟혔던 항쟁 과정,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의 시선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에 닿아 있다. 국가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 시위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을 시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는 '소년이 온다'가 차지했다.

예스24와 교보문고가 발표한 '올해 도서판매 및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특히 한강의 책들은 베스트셀러 10위 이내에 모두 5종이 오를 만큼 한강 신드롬을 과시하고 있다.

예스24는 한강의 책은 수상 이후 전년 동기 대비(10월 10일~11월 30일) 약 100배 판매가 급증했으며 그 가운데 '소년이 온다'는 7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10위 안에 든 작품은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등이다.

교보문고가 분석한 자료에도 '한강 효과'가 나타나 있다. '소년이 온다'는 10월 10일 노벨상 수

예스24·교보문고 도서 판매 순위

'소년이 온다' 종합베스트셀러 1위 '채식주의자' 등 10위권 내 5종 올라 소설 35.7%, 시·에세이 17.1% 신장 스타 작가들 출간... 고전 문학 역주행

상 이후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임에도 판매량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종합 1위를 차지, 직전까지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2015년 1위) 판매량을 넘어섰다.

또한 한강에게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을 안겼던 '채식주의자'도 8년 만에 1위를 탈환해 화제가 됐다. 마찬가지로 소설 5종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권에 포함됐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전후로 50대 이상 독자층에서 구매가 많이 늘었다. 노벨상 수상 한강 작품은 20대가 가장 많이 구매했지만(35.5%), 수상 이후에는 50대 이상이 15.3%에서 27.3%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무엇보다 '한강 효과'로 소설 분야가 전년 대비 35.7% 신장했다. 시·에세이 분야는 3년간 역신장

에서 17.1%로 판매량이 확대됐으며 청소년 문학도 판매가 12.6%나 올랐다.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은 도서들도 주목을 받았다. 예스24는 올해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역시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후 후보에 오른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도 각각 36배, 95배 판매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스타 작가들의 장편소설도 출간돼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불편한 편의점'으로 사랑을 받았던 김호연 소설가는 '나의 톨스토이'로 독자들을 찾아왔으며 여름에는 정유정 소설가의 '영원한 천국', 김애란 소설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각각 발간돼 독자들로부터 받았다.

올해는 고전 문학이 역주행하기도 했다. 1998년 나온 양귀자의 장편 '모순'은 전년 동기 대비 140.7% 판매가 급증했다. SNS에서 감명 깊은 글귀를 공유하는 문화가 독자들 사이 공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밖에 '힘붙고' 열풍의 '잇다르타'를 비롯해 '데미안', '인간실격' 등 고전이 독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며 역주행 신화를 쓰기도 했다.

한편 교보문고 관계자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 효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출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미국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의 4층 전시실에 가면 한때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작을 만날 수 있다. 세라믹과 텍스타일로 제작된 가로 x 세로 10m크기의 '디너 파티'(Dinner Party, 1974~1979년 작)다. 시카고 출신의 여성 작가 주디 시카고(Judy Chicago)가 제작한 작품은 고상한 타이틀과 달리 삼각형 모양의 긴 테이블 위에 여성의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접시들이 놓여 있다. 남성의 관음증에 저항하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는 의미를 담아 공개 당시 미술계의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매년 이맘 때면 브루클린 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디너파티'들이 새해까지 릴레이로 펼쳐진다.

에 맞춰 기획한 '뮤지엄 파티' 덕분이다.

사실, 메트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해 기업,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 등의 모임을 적극 유치하는 마케팅의 귀재다. 차별화된 컬렉션과 영화상영, 갈라쇼 등 미술관의 장소성을 살린 무대와 저녁 식사를 연계한 컨벤션 파티는 예약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인기다.

이처럼 매년 12월이 되면 미국의 미술관들은 분주해진다. 유명 미술관은 물론 지역의 작은 미술관도 마찬가지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보고 식사도 하며 한해를 갈무리하는 송년모임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말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미술관은 가족들

미술관 송년회가 특별한 이유

무대는 전시실이 아닌, 연회장(Edwardian Clubhouse)과 로비 등이다. 뉴욕의 유명 케이 터링 업체인 유니온스퀘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니언스퀘어를 만나다'(Meet Union Square Event)이다. 흥미로운 건, 시카고의 작품이 '수동적으로' 감상한 관람객들이 파티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식사와 와인 즐기며 흥겨운 모임의 호스트로 변신하는 것이다. '문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미술관에서 특별한 한해를 되돌아 보고 싶은 이들이 많아져서인지 유니언스퀘어 이벤트는 신청자들의 예약이 줄을 잇는다.

세계 5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일명 Met)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접할 수 있다. 5000년에 걸친 전 세계의 예술작품 200만 점을 소장한 글로벌 미술관이지만 뉴욕에는 한없이 친근한 문화사랑방이다. 연말연시나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이벤트 데이

의 외식 나들이에서부터 비즈니스맨들의 사교모임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다. 이렇다 보니 송년 모임이 많은 12월에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와달리 우리나라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송년모임을 갖는 문화애호가들이 많지 않다. 예전과 달리 근래 좋은 전시나 콘서트를 단체관람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예 갤러리나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한해를 되돌아 보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은 드물다.

한해의 그트머리인 12월이다. 끝모를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살이가 각박해진 요즘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아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지. 작품 앞에 서면 예술적 감동 못지 않게 잠시 잊고 살았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돌'은 시였다가 기억이었다가 악몽이었다

김문순 광주재능시낭송협회장 첫 시집 '돌에게...' 펴내

광주재능시낭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순 시인이 첫 시집 '돌에게 자꾸 들켰다'(더퍼른 출판사)를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재능시낭송협회 회장을 맡아 지역 시낭송 활성화와 시인과 낭송가들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직접 시를 쓰고 낭송해 시가 지닌 울림과 아름다움을 나누어왔다.

이번 시집에는 '애완 돌', '소 엉덩이에 눈동자가 산다', '페르소나', '리허설', '올려' 등 다소 이색적인 모티브를 시의 언어로 구현한 50여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돌은 시였다가 기억이었다가 악몽이었다가 나옴이 끝없는 중얼거림이었다가 비단잉어 코이처럼 내가 나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외로움이 해소될 때까지 돌을 사랑했다// 걸림 돌 같던 당신이 떠나고/ 신조어의 파생 같은 애완 돌을 만났다// 돌의 생각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나의 애증은 숙연해졌다//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처럼/ 쓰다듬어지는 일에 익숙해지는 맨살//(중략)// 넌 아직도 기다림을 민니/ 흑요석이 밤마다 꾸벅꾸벅 걸어와 속삭였다// 그렇게 나는 돌에게 자꾸 들켰다// 들켜도 들켜도 부끄럽지 않았다..."

'애완 돌'은 이번 시집에서 의미있는 작품이다. 시집을 아우르는 제목이 "그렇게 나는 돌에게 자꾸 들켰다"라는 구절에서 차용됐다.

회자는 "외로움이 해소될 때까지 돌을 사랑했다"고 고백한다. '돌'은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이외의 사물이나 애착하는 동식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추구하는 가치이거나 신념일 수도 있



김문순 시인



겠다. 이제 화자는 "돌이 떠나면 내가 먼저 돌이 될 것만 같았다"고 읊조린다. 화자가 추구하고 애정하는 '돌'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민석 평론가는 "시인은 죽음의 발에서 생명의 씨앗을 찾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고체의 시간에서 액체의 시간을 찾는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지난 2022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불교방송, 첨단2지구에 새 사옥

광주불교방송(사장 최갑렬) 이상무지구 사옥에서 첨단2지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1041빌딩으로 오는 13일 이전한다.

3일 불교방송에 따르면 새 사옥인 허드슨1041빌딩(북구 연제동·조감도)은 최갑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일건설 자회사 소유 건물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광주불교방송은 지난 4월 최갑렬 사장 취임 이후 사옥 이전 작업에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6일 최종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기상악화로 무등산 송신소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13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

광주불교방송은 이 건물 13층에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첨단시대를 열어가길 예정이다. 듣는



최갑렬 사장은 "내년이면 개국 30주년을 맞는 광주불교방송이 사옥이전과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며 "방송포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목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송에그치지 않고 스튜디오 영상을 보여주는 '보이는 라디오' 시대를 열어 갈 최첨단 스튜디오도 마련해 청취자들에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